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필기시험 ‘스포츠윤리’ 과목의 현황과 과제*

이승훈** · 장재용***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uture Tasks of the Subject of ‘Sport Ethics’ in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Sport Instructors

Lee, Seung-Hoon · Jang, Jae-Yong

요약

이 연구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에 스포츠윤리 과목에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된 스포츠윤리 문제를 모두 분석하였다. 이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기대하는 스포츠윤리 과목에 대한 모습과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일치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포츠윤리 과목이 어떻게 보완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째, 지금과 같은 객관식 문항이 아닌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둘째, 다른 직업을 뽑는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성 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스포츠윤리성 검사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 주제어 :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스포츠윤리, 스포츠철학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subject of sport ethics is functioning properly in the sport instructor qualification test.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s a way to perform its functions more effectively. To this end, all sport ethics questions from 2015 to 2021 were initially analyzed. Based on a subsequent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how the appearance of the subject of sport ethics is expected in reality, and the types of questions being presented coincide or differ. Finally, a plan was suggested on how the subject of sport ethics should be supplemented and developed to meet the expectations in reality. Consequently, the ability to think by introducing subjective or descriptive questions should be developed instead of using multiple-choice questions as in present. Furthermore, a method of introducing and utilizing sport ethics tests in a form similar to the personality test conducted for selecting other occupations should be introduced.

※ Key words : sports instructors, written exam, sport ethics, sport philosophy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해양대학교 연구년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chool of Liberal Education, Professor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교수, jjy80@kmou.ac.kr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Dept. of Marine Sport Science, Professor

I. 서론

‘스포츠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스포츠 행위를 할 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네이버사전, 2021). 일견했을 때, 스포츠는 명문화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법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윤리를 중시하는 것처럼 스포츠에서도 윤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에는 규칙이 존재하지만 규칙 준수만 잘한다고 해서 스포츠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칙의 준수는 기본이며, 정당당당하게 경기를 하려고 하는 페어플레이나 더 광의적 의미인 스포츠맨십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어야 스포츠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이승훈·김동규, 2013). 뿐만 아니라, 스포츠윤리라는 것은 경기 내적인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규칙 준수,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등과 같은 요소들은 대부분 경기와 관련된 것, 즉 경기 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윤리와 관련된 요소들은 경기 외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경기 중 발생하지 않는 폭력이나 차별, 학습권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에 의한 국가대표 선수 상습 성폭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 이후부터 스포츠계에서도 일명 ‘미투’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기 내적인 영역이 아닌 경기 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 외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합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전체 학생선수 중 9,035명이 언어폭력, 8,440명이 신체폭력, 2,21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처럼 경기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던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로 인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반윤리적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즈음에 지도자 등의 폭력으로 인해 철인 3종 경기종목의 선수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스포츠계에서는 반윤리적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응과 같은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이 핵심이라 할 수 있기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 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지도자에 의해 발생하는 반윤리적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지도사(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자격 검정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각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나 응시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각 자격의 1급과 건강운동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의 과목 중 4-5과목을 택하여 시험에 응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명 스포츠과학으로 명명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의 과목은 경기력 향상이나 지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주요과목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은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나 아예 검정 과목에서 제외되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해령·류태호, 2019; 정덕조, 2019).

일견했을 때, 스포츠윤리는 통칭 스포츠과학으로 명명되는 스포츠심리학이나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스포츠심리학이나 운동생리학 그리고 운동역학 등의 학문은 경기력 향상이나 지도에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스포츠과학을 활용하여 잘 지도한다고 해서 지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의 반윤리적 문제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윤리 과목은 실력 있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항목은 아니지만 올바른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항목인 것이다(정현우·이창현·이계산, 2019). 또한 스포츠윤리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전상완, 2019)이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실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올바른 면서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것을 검정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서 스포츠윤리 과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교육학(김선희·김진희, 2017; 한동수·신원규·이주욱, 2018)과 한국체육사(곽낙현·김미숙, 2019) 과목에서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인식이나 분석 등을 통해 방향을 찾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스포츠윤리 과목과 관련하여서도 스포츠윤리 과목이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 과목에 포함될 당위성을 주장한 연구(김홍식, 2018)도 진행된 바가 있다. 하지만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현행 스포츠윤리 과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 제도 개선 이후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스포츠윤리 과목 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올바른 지도자 배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올바른 지도자 배출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서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서 스포츠윤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서의 스포츠윤리 과목 문항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윤리학 이론 등 다양한 논문과 저서,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수집하여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도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문헌고찰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방법은 연구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되었기에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고 활용하였다.

II. 본론

이 장에서는 먼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스포츠윤리 과목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후 현행 스포츠윤리 과목이 현실에서 스포츠윤리 과목에 걸고 있는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1. 연도별 스포츠윤리 문항 분석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 출제되는 문제는 과목별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스포츠윤리 문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행하였다. 문제 출제 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

원에서 기준으로 하는 표준 교재인 한국체육철학회(2015)의 『스포츠윤리』를 살펴보면, 주요항목은 스포츠와 윤리,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불평등,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 스포츠와 폭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조직과 윤리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항목 8개 안에는 다시 세부항목들이 스포츠와 윤리(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스포츠윤리의 이해, 윤리이론), 경쟁과 페어플레이(스포츠경기의 목적,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불평등(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스포츠와 환경윤리, 스포츠와 동물윤리), 스포츠와 폭력(스포츠폭력, 선수폭력, 관중폭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도핑, 유전자 조작, 스포츠에서 생체공학 기술활용), 스포츠와 인권(학생선수와 인권, 스포츠지도자의 윤리, 스포츠와 인성교육), 스포츠조직과 윤리(스포츠와 정책윤리, 심판의 윤리, 스포츠조직의 윤리경영) 등 23개 항목이 있다. 23개의 세부항목 안에는 다시 많은 세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포츠윤리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여러 세세항목의 통합 문제나 세부항목 간의 통합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특정 세부항목이나 세세항목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의 출제문항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출제문항 분석

2015년은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이 개편되어 처음 시작되었던 해이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때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스포츠윤리에 출제된 20문제는 모두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타의 과목과 동일하게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이론을 암기하여 그에 맞는 답안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부항목 중 ‘스포츠와 윤리적 기초’에서 1문항,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3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1문항, ‘페어플레이’에서 2문항, ‘인종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와 동물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 폭력’에서 1문항, ‘선수폭력’에서 1문항, ‘관중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1문항, ‘학생선수의 인권’에서 1문항, ‘스포츠지도자 윤리’에서 2문항, ‘스포츠와 인성교육’에서 2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조직의 윤리경영’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세부항목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그중 스포츠윤리의 이해 항목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는 스포츠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중시했다고 판단된다.

2) 2016년 출제문항 분석

2016년 문제는 2015년과 대동소이하게 출제되었지만, 그중 제기될 수 있는 변화는 <보기>에 지문을 삽입하여 조금이나마 생각을 유도하는 문제가 3문제 포함된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암기식의 문제와 더불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여 그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1문항,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2문항, ‘윤리이론’에서 2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1문항, ‘스포츠맨십’에서 1문항, ‘성차별’에서 2문항, ‘장애차별’에서 2문항, ‘스포츠와 환경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동물윤리’에서 1문항, ‘관중 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3문항, ‘스포츠지도자 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정책윤리’에서 2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과 유사하게 스포츠윤리의 이해와 윤리이론에서 각각 2문항씩 출제되었으며, 윤리이론 항목에서 지문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3) 2017년 출제문항 분석

2017년 문제는 2016년에 비해 <보기>를 활용한 지문이 삽입된 문제 대폭(총 8문제) 확대되었으며, 지문의 형태도 해설식이 아니라 대화식도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스포츠윤리는 여러 가지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

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반윤리적 상황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1문항, '윤리이론'에서 4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2문항, '스포츠맨십'에서 2문항, '페어플레이'에서 4문항, '성차별'에서 1문항, '장애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와 환경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동물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 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1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은 대부분 윤리이론과 페어플레이 항목에서 출제되면서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의 이해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2018년 출제문항 분석

2018년 문제는 2017년 문제처럼 <보기>를 활용하여 지문을 많이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지문의 형태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2017년에 비해 생각을 유도하는 문제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은 5개 과목 총 1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시간은 100분이다. 따라서 1문항에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시험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2문항,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2문항, '윤리이론'에서 5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1문항, '스포츠맨십'에서 1문항, '페어플레이'에서 2문항, '인종차별'에서 1문항, '장애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와 동물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 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1문항, '학생선수의 인권'에서 1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윤리이론' 항목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세세항목이 결과론적 윤리체계, 의무론적 윤리체계, 목적론적 윤리체계, 동양사상과 윤리체계, 가치충돌의 문제와 대안 등 5개나 되기도 하지만, 각 윤리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5) 2019년 출제문항 분석

2019년 문제는 지금까지의 스포츠윤리 문제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삽입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개 과목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하므로 산술적으로 1분에 1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통 1문제당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포츠윤리 과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1문항, '윤리이론'에서 8문항, '페어플레이'에서 2문항, '인종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와 환경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동물윤리'에서 1문항, '관중 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1문항, '학생선수의 인권'에서 1문항, '스포츠와 인성교육'에서 1문항, '스포츠와 정책윤리'에서 1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년에는 특히 '윤리이론' 항목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지금까지 다소 출제 비율이 떨어졌던 동양사상과 윤리체계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각각의 윤리이론을 여러 가지 윤리적 상황에 대입하여 설명함으로써 많은 고민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6) 2020년 출제문항 분석

2020년 문제는 2019년의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보기>에서 다양한 지문을 활용함으로써 단순 암기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지양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1문항,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1문항, '윤리이론'에서 4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2문항, '페어플레이'에서 1문항, '성차별'에서 1문항, '인종차별'에서 1문항, '장애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와 환경윤리'에서 2문항, '스포츠폭력'에서 1문항, '도핑'에서 2문항, '스포

츠지도자 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인성교육'에서 1문항, '심판의 윤리'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실제 사례를 <보기>로 제시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스포츠윤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적용하면서 이론과 실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7) 2021년 출제문항 분석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보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문을 통해 문제를 구성하는 형태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다. 단순 이론이라기보다 응용에 가까운 이론 시험이 지금의 스포츠윤리 과목 문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스포츠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지도자의 윤리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1문항, '스포츠윤리의 이해'에서 3문항, '윤리이론'에서 4문항, '스포츠경기의 목적'에서 1문항, '스포츠맨십'에서 1문항, '페어플레이'에서 2문항, '인종차별'에서 1문항, '장애차별'에서 1문항, '스포츠 폭력'에서 1문항, '스포츠지도자 윤리'에서 1문항, '스포츠와 인성교육'에서 2문항, '스포츠와 정책윤리'에서 1문항, '기타'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세항목까지 범주를 넓히면 '기타'뿐만 아니라 '스포츠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성교육' 등은 실제 세부항목이나 세세항목과 맞지 않은 새로운 항목의 문제이지만, 유형의 다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재의 편찬이나 참고가 필요한 시점임을 암시하는 문제 출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윤리 과목의 문제는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역학, 운동생리학 등과 달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善)한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의 출제문항에서도 다른 과목과는 달리 생각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지선다형이라는 객관식의 형태에서는 사고의 폭이 지금보다 더 이상 확대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스포츠윤리 과목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스포츠윤리 과목의 형태는 다른 과목과는 다소 다른 모습과 형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생각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최선인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객관식 4지선다형의 틀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스포츠윤리라는 과목이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 포함된 이유는 지도자의 철학, 그중에서도 윤리적 능력을 확인하고 배양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는 능력은 철학의 기본이며, 철학 안에서도 윤리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이천희·김태영·신지혜, 2018). 김홍식(2018: 22)은 "스포츠철학(및 윤리)은 스포츠지도자(sport coach)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의 가치를 숙고, 판단, 정립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지도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가치문제를 숙고, 판단, 정립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반성적 전문인(reflective practitioner)보다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자에 가깝다."고

하면서 스포츠지도사 시험에서의 스포츠윤리 과목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체육교사를 선발하는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서도 스포츠철학 과목이 존재하는 이유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김홍식(2018: 28)은 철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철학적 힘을 갖추지 못한 타성적 지도자가 과연 자율적인 선수를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르지 않다. 타성적인 지도자의 타성적인 선수 기르기, 극단적인 비유로 표현하면, 운동기계를 만드는 운동기계라고 할까! 철학의 힘을 심대하게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지만, 철학의 힘, 일상적 표현으로, 보다 근본적인 숙고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자결(自決)과 자책(自責)의 인간 자율성을 향한 추구의 결여일 것이다(김홍식, 2018: 28).

이처럼 스포츠윤리 과목은 선수를 운동기계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윤리 과목이 다른 과목들(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등)과 달리 '학(學)'자가 붙지 않는 이유는 이론보다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처럼 윤리학적 지식을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스포츠윤리학'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윤리 이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실천 중심의 올바른 스포츠지도사 양성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기에 윤리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스포츠윤리'라는 명칭으로 실천에 초점을 맞춘 문제 유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명칭의 구분을 위해서는 먼저 윤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倫)의 이치(理)를 뜻하는 것으로 도덕적 현상의 바탕이 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윤리는 사회규범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라고 말할 때의 윤리는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을 가리키며,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옳은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주관적 격률(格率)을 의미한다(김정호, 2020: 4).

이처럼 도덕은 개인적 심성이나 덕행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며,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따라서 스포츠윤리라는 과목은 스포츠라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합의적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론화한 것을 스포츠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스포츠윤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사고(思考)하는 능력이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은 단순히 스포츠윤리 이론을 공부한 후 그것을 조금 응용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기에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고 교재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라 수험생들의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스포츠윤리 과목이 실천보다는 이론적 성향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최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단순 암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응용문제를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스포츠지도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정현우·이창현·이계산, 2019)에 이를 수 있으며, 그중에서 스포츠윤리 과목을 합격한 스포츠지도사는 윤리적인 지도자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스포츠윤리 과목의 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서 스포츠윤리 과목이 7년제 유지 중에 있지만, 최초의 목적(올바른 지도자 양성)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윤리 과목이 나아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장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으며,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증 제도를 대폭 개편해야만 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첫째, 실천 중심의 스포츠윤리 문제 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문제 형태는 윤리적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스포츠윤리학자나 스포츠윤리지도사 등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학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문제 형태는 스포츠윤리학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것을 암기하여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필기시험 과목에 스포츠윤리가 포함됨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도 스포츠윤리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는 스포츠철학이나 스포츠윤리학 전공자가 아닌 타 전공자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암기식의 교육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박성주, 2019). 따라서 문제의 형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인 지도자 선발에는 다소 부족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지금의 형태는 오히려 스포츠윤리학자나 스포츠윤리지도사에 어울릴 것 같은데, 박성주(2019: 207)는 스포츠윤리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스포츠에서 도핑은 공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가치판단이다. 하지만 스포츠윤리학자는 도핑을 윤리적인 시험대에 올려놓고 왜 공정성에 어긋나고, 어떤 윤리적 원리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금지시킬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는지를 윤리학적으로 고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학자는 형식주의, 내재주의, 관습주의, 제도론 등과 같은 스포츠의 의미에 관한 통찰력을 심화시키는 다양한 이론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형태를 보면 위에 제시된 스포츠윤리학자가 공부할 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윤리학적 이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론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대하다. 따라서 스포츠윤리 의식 검증이나 고취를 위한 형태의 문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식 형태가 아닌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를 통해 충분히 사고하고 그것을 응용하면서 자신만의 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 필요하다.

둘째, 주관식이나 서술형의 문제가 어려울 경우, 인성검사를 통한 윤리적 지도자 선발이 필요하다.

인성검사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채용에서 지원자의 행동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격자를 배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민간부문 채용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적성 검사가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 소방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원들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채용과정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다(최응렬·김성환, 2012: 298).

이처럼 인성검사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나 경찰, 교사 및 공무원 등의 선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인성검사에 스포츠윤리 항목을 도입하여 그것을 통해 윤리성 척도를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스포츠지도사나 국가대표 등 사회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라 생각된다(이승훈, 2019).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격언이 있다. 아무리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더라도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량과 윤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지도자의 명확한 가치관과 지도 철학 그리고 윤리적 심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주관식 및 서술형 문제 출제나 인성 검사는 모두 윤리적 지도자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윤리적인 지도자에게서 자기도 받는 선수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폭력적인 지도자 밑에서 폭력적인 선수가 탄생하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 능력을 키우기 이전에 윤리적 심성, 즉 인간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의 아레테와도 연관된 것인데, 아레테는 흔히 덕 또는 탁월성으로 해석된다. 스포츠지도자의 아레테는 선수를 잘 지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주체적 생명체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아레테, 즉 덕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승훈·김동규, 2013). 덕을 갖춘 이후에 지도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III. 결론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에서 스포츠윤리 과목이 도입된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스포츠윤리는 다른 스포츠과학 과목과는 달리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지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검정 과목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지도자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문제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객관식 4지선다형이 아닌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의 출제가 필요하다. 스포츠윤리라는 영역은 단순 암기를 통해 지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암기한 내용을 맞히는 객관식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사고하고 응용하여 자신만의 올바른 답을 찾고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술형 문제의 출제가 어렵다면, 인성검사 항목의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공직자나 각종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 절차에서도 인성검사의 영역을 도입하여 스포츠윤리 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윤리는 한국체육철학회의 전공영역이기에 출제된 문제의 분석과 오류에 대한 사후 검토 그리고 문제 출제의 방향 제시 등을 학회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학회 차원에서의 교재 편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포츠윤리 과목이 처음 도입된 취지에 맞게 윤리적 지도자 양성 및 선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 곽낙현, 김미숙(2019). 체육지도자 제도 개편에 따른 “한국체육사”출제 경향 검토 및 시사점.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3), 177-187.
- 김선희, 김진희(2017).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스포츠교육학」과목에 대한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56(2), 259-270.
- 김정효(2020). **스포츠윤리학(개정판)**. 서울: 레인보우북스.
- 김홍식(2018). 스포츠지도사와 스포츠철학.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6(4), 21-30.
- 박성주(2019). 스포츠윤리학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전망. **체육과학연구**, 30(2), 199-212.
- 이승훈(2019). 국가대표의 ‘자격’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28(2), 15-31.
- 이승훈, 김동규(2013). 스포츠맨십의 윤리학적 정초.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41-59.
- 이천희, 김태영, 신지혜(2018). 스포츠의 윤리와 도덕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11-19.
- 이해령, 류태호(2019).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과정에서의 전문가 역할 변화 탐색.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3), 141-155.
- 전상완(2019).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스포츠윤리’연구동향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901-910.
- 정덕조(2019).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의 개선 방안 -자격 종류, 수준, 필기시험 과목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발전**, 37(2), 379-391.
- 정현우, 이창현, 이계산(2019).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바람직한 스포츠지도사 개념과 코치 표준 및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8(3), 143-157.
- 최응렬, 김성환(2012). 경찰 인성검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3), 297-318.
- 한국체육철학회(2015). **스포츠윤리**. 서울: 대한미디어.
- 한동수, 신원규, 이주욱(2018).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필기시험의 스포츠교육학 문항분석 및 지향성 탐색. **교육연구논총**, 39(1), 231-254.
- 국가인권위원회(2019).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4726&menuid=001004002001>.
- 네이버사전(2021).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50eb276f86f462a8a90b98f62fc42d5>.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9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